



플렉소 패키징 인쇄의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 세미나 프린벨트 · 에스코 주최...2백여 인쇄인 모여 성황

프린벨트(대표 이근성)와 에스코그래픽스(대표 이도상)는 지난 7월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 C 홀에서 플렉소 패키징 인쇄의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을 주제로 한 '플렉소 인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백여명의 인쇄인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근성 프린벨트 대표는 인사말에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인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포장 등과 관련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식품포장 등은 대부분 친환경 솔루션인 플렉소 인쇄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차세대 친환경 솔루션인 플렉소 인쇄가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도영 에스코 부장이 '플렉소 제판 솔루션 및 동향', 토마스 브라나 소마 본사 지역 매니저가 '플렉소-다양한 효과를 위한 소마 솔루션', 박도영 에스코 부장이 'EQUINOX-7 색을 이용한 확장 컬러인쇄', 요크 클비츠 소마 아시아 사장이 '식품 포장에서의 레토르트 및 무용제 라미네이팅'에 대해 발표했다.

성장하고 있는 플렉소 인쇄시장

1인 가구, 맞벌이부부 등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포장 트렌드 역시 대용량에서 소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량소비라는 기존의 라이프스타일과는 달리 1인 가구나 맞벌이부부는 많은 양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간편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인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포장하는 소포장 소용량 상품을 우선 선택하고 있으며, 전

자렌지에 대위 바로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상품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패키징 인쇄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제판작업이 전환되고 있다. 박도영 에스코 부장은 '플렉소 제판 솔루션 및 동향'에서 "인쇄사의 경우 대기업에서 받는 대형 물량은 전체 작업 시간을 따져 보면 약 5~10% 밖에 되지 않지만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나머지 인쇄물량은 5000미터 이내의 소량 인쇄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소량다품종 인쇄물 제작에는 플렉소 인쇄가 적합한데, 그라비아가 100개의 작업을 할 때 플렉소는 248개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평균 작업준비 시간 또한 그라비아의 7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최근 플렉소 인쇄 기술이 향상돼 오프셋인쇄와 그라비아인쇄와 대등한 수준의 인쇄품질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08년 전 세계 플렉소 인쇄량은 600만㎡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790만㎡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플렉소 제판 기술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초기 라운드탑 방식은 망점의 표면이 봉우리 형태여서 충분한 양의 잉크전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플랫탑도트(Flat top dot)는 솔리드에서는 좋지만 하이라이트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에스코의 풀HD 플렉소는 라운드탑과 플랫탑도트를 동시에 구현하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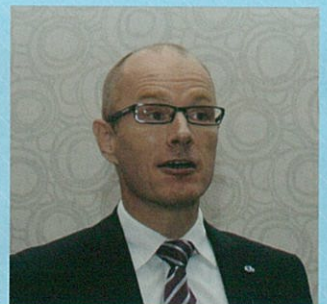
인사말을 하는 이근성 프란벨트 대표



발표를 하는 박도영 에스코 부장



발표를 하는 토마스 브라나 소마 본사지역매니저



발표를 하는 요크 쿠피츠 소마 아시아 사장

소량다품종 인쇄에 최적화된 소마 플렉소 인쇄기

토마스 브라나 소마 본사 지역 매니저는 ‘플렉소-다양한 효과를 위한 소마 솔루션’에서 “소마는 플렉소 인쇄기를 공급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연포장 및 라벨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소마 엔지니어링의 플렉소 인쇄기는 친환경 수성잉크를 사용해 얇은 재질에서도 고품질 인쇄가 가능하다. 특히 그라비아 인쇄의 경우 7~8도로 작업해야 하는 인쇄물도 백색+4도 인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원가절감도 가능하다. 또한 작업준비 시간이 기존의 그라비아 인쇄의 1/4에 불과해 소량 다품종 인쇄에 적합하다. 또한 인쇄 색맞춤도 100m 이내에서 가능해 세팅타임과 손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잉크도 23.6%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브라나 매니저는 “장통작업에서는 그라비아 인쇄가 유리하지만 소량다품종 작업물의 경우 준비시간이 짧은 소마 플렉소 인쇄기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EQUINOX-7색을 이용한 확장 컬러인쇄

박도영 부장은 “별색이 많은 인쇄물일수록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EQUINOX 7색을 이용하면 다양한 별색인쇄를 잉크 교환없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작업준비 시간 단축, 비싼 별색잉크 불필요, 세척에 필요한 솔벤트 사용량 감소 등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잉크교환을 할 필요가 없어 인쇄가

동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인쇄판에 다양한 별색이 적용된 다양한 작업물을 한 번에 인쇄할 수 있어 작업효율이 높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EQUINOX를 실행하는 과정은 간단한데, ISO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잉크로 CMYK와 추가 3색 잉크(RGB 또는 OGV)를 선택한 뒤 잉크 세팅을 위한 인쇄특성인쇄(Fingerprint) 및 측정을 한다. 측정된 파일을 기초로 인쇄기 및 교정기의 색상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별색포함 데이터를 EQUINOX를 이용해 재분판(자동+수동보정)하면 된다.

편의성·보관성 우수한 레토르트, 식품포장서 인기

고객의 니즈가 변하면서 포장인쇄의 트렌드 역시 상품의 품질 보호라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편의성, 공급업체의 유통 편의 등 공급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요크 쿠피츠 소마 아시아 사장은 ‘식품 포장에서의 레토르트 및 무용제 라미네이팅’을 통해 “식품 포장에서는 레토르트가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운반 용적이 작고 진공 포장인 고온 처리 후 밀봉하기 때문에 위생적인데다 상온에서도 몇 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식품 포장은 레토르트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미나장에 전시된 플렉소 인쇄물

